

# 종합돌봄쿠폰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전주시, 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350여명에 생활밀착형 쿠폰 제공

전주시가 통합돌봄 대상자에 밀반찬, 간병, 청소 등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쿠폰을 제공한다.

시는 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국비 1억5100만 원 등 총 3억200만 원을 들여 종합돌봄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종합돌봄쿠폰은 ▲밀반찬 지원 ▲가사간병 지원 ▲병원·마트 등 외출 동행 지원 ▲소독·방역 ▲냉장고 정리 ▲하수구 뚫기 ▲가전 클리닝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중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 특채 지원 쿠폰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1인당 80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이 돌봄쿠폰은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전주시는 23일 번재관 통합돌봄 총괄지원관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주체인 JB스토어 36.5 사회적협동조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생활밀착형 특채 지원이 가능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번재관 통합돌

봄 총괄지원관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주체인 JB스토어 36.5 사회적협동조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협동조합협의회와 전주시사회

적기업협회, 전주시활기협회, 전주시마을기업협회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종합돌봄쿠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지역의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종합돌봄쿠폰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구를 갈다가 낙상하시는 어르신, 병원동행이 필요하나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소소한 일상 속의 틈새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특히 돌봄서비스 사업을 전주시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대해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유공자 유족 김영도 씨 댁 찾아 부착

김승수 전주시장이 호국보훈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유족 댁을 찾아 명패를 달아드렸다. 전주시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은 23일 국가유공자 유족 김영도 씨(73세) 댁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 세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장 및 보훈단체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도 씨는 국가유공자 고 김정호 씨의 자녀다. 공군 소위로 6.25 전쟁에 참전한 고 김정은 씨는 1950년 9월 18일 황해도에서 전사해 국가보훈처에 전몰군경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윤심 지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시는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금처럼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은 지난 3월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전몰·순직 군경 등 유족으로

까지 확대됐다. /김윤상 기자

## ‘농산물 홍보~판매까지’ 스마트 농부·농튜버 양성

### 전주농기센터, 11월까지 농업인 65명 대상 미디어파머 양성교육

농업인들이 흡소빙 등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는 스마트한 농부로 변신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주)는 오는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정보화교육장에서 농업인 65명을 대상으로 미디어파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디어파머 양성교육은 농업인들의 온라인 판매 능력을 강화해 직접 자신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라

이브 커머스(5회) ▲스마트스토어(6회) ▲유튜브 제작(8회) ▲인스타그램 활용(8회) 등 4개 과정이 각각 15~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라이브 커머스 과정은 그림(소프플랫폼)을 활용한 흡소빙 판매 실습 과정을 중심으로, 스마트스토어 과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방법과 고객관리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또 농튜버(농업인+유튜버) 양성을 위한 1인 미디어 방송의 이해, 동영상

편집 및 제작 방법 교육과 인스타그램 상품홍보 기법(해시태그, 이미지)에 대한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거나 소포장 방법, 사진촬영 기법, 상품노출 전략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판매 상품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온라인 판로 확대로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이 주관한 강소농대전에서 ‘떡방’을 통해 전통장류를 홍보한 결과 판매가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 내년도 농촌진흥청 디지털 콘텐츠 제작소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농업이아말로 미디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면서 “스마트 농부, 농튜버 양성으로 농업의 활로를 찾고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 PR론 수강생과 전주시 글로벌마케팅 방안 모색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치맛간지 세계절 꽃밭, 막걸리골목 팝업스토어 등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마케팅 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시는 23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상훈 전북대학교 지역디지탈미디어센터장, 최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장, 지난 학기 PR론 수강생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글로벌마케팅 방안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대 학생들은 PR론 수업을 통해 도출한 전주의 관

광 마케팅 아이디어를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씩쓰리 조는 치맛간지 광장 내 세계절 꽃밭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사상초유 조는 삼천동 막걸리골목 팝업스토어와 막걸리골목 마스크트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선미촌 상징 유리성문 제작, 서노송예술촌 릴레이 홍보 캠페인, 마라톤한마당, 전주여행주간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전주시 문화관광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통합 홈페이지서 주거복지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주시민들에게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거안정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시민들의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합 홈페이지(www.jjhousewell.co.kr)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 주거복지 정책들이 담겨 있어 시

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주거복지 상담부터 자가진단, 주거복지 정책 안내 및 신청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모집 달력과 같은 메뉴도 구성됐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하나로 모아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매년 제작하고 있다. 2021년 신규 제작본의 경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야호학교, 1학기 전주시사람 프로젝트 내달 마무리

중학생들의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신홍중, 오송중, 화정중, 기전중 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학기 전주시사람 프로젝트를 다음 달 마무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사람 프로젝트는 전주의 정신·문화·관광지·역사·예술 등을 글감으로 교정학습을 진행하고 스토리가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전주시를 지역을 조금씩 배울 수 있고

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지역이나 학교와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팀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자긍심과 자기주도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다음 달에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을 찾는 트윈세대(12~16세)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용소중, 덕일중, 효문여중 학생 60명과 프로젝트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기본적인 영상 콘텐츠 촬영 외에도 드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